

“유럽무대 성공 데뷔…첫 시즌 제 점수는 50점입니다”

‘광주의 아들’ 스완지시티 엄지성 본보 인터뷰

“유럽 무대는 개인 기량 싸움이라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팬분들의 응원 덕분에 영국에서 시즌을 잘 마무리하고 웃으며 경기장에 올 수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리그) 스완지시티에서 첫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친 엄지성이 친정팀 광주FC를 찾았다. 엄지성은 선수단을 위한 커피차를 준비한 것은 물론 지난 11일 광주FC와 전북 현대 경기를 찾아 사인회를 갖고 자신을 응원해준 팬들을 만나 고마움을 전했다.

엄지성은 “오랜만에 광주를 찾았는데 많은 팬분들이 반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팬들이 4시간 전부터 사인회 대기를 했다고 하더라. 광주 팬분들께 큰길 헤드릴 순 없지만 얼굴을 뵙고 웃어드리고 싶었다. 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부상 없이 한 시즌을 잘 마무리하고 광주에 돌아왔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면서 “형들, 감독님, 코칭스태프에게 작은 대접이라도 하고 싶었고 팬분들의 응원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컸다”고 진심을 전했다.

엄지성은 지난해 여름 광주에서 스완지시티로 이적하며 유럽 무대에 첫발을 내디뎠다.

낮선 환경과 빠른 경기 템포 속에서도 점차 적응하며 입지를 다졌고 시즌 중반에는 무릎 부상으로 잠시 이탈했지만 총 37경기(28경기 선발)에 출전해 2,300분 이상을 소화하며 첫 시즌을 3골 3도움으로 마무리 지었다.

엄지성은 “광주에서는 감독님의 지도 아래 전술을 잘 익혔고 큰 어려움이 없었다”면서도 “개인 기량을 많이 선호하는 나라의 축구를 접해보니 초반에는 적응하기 힘들었다. 스피드, 피지컬, 체력까지 모든 게 빨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설명했다.

유럽 이적에 대해서는 “선수라면 누구나 유럽 무대를 꿈꾼다. 광주FC에 있을 때도 그런 목표를 갖고 있었고 이정호 감독님도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다”며 “그 말씀에 부응하고 싶었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감독님께서 흔쾌히 보내주셨다”고 돌아봤다.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하나씩 점검하며 유럽 축구에 녹아든 엄지성은 지난 3월 마들레르브리엔 선발로 출전해 리그 데뷔골을 기록했고, 시즌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환상적인 골아차기 골을 터뜨리며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럼에도 엄지성은 아쉬움과 만족이 공존한다는 솔직한 자기평가를 내렸다. 그는 “이

잉글랜드 챔피언십 첫 시즌 마치고 광주 찾아 사인회 진행·선수단에 커피차 등 마음 전해 “반겨주신 팬들께 감사…다시 만나 행복해요”

번 시즌은 10점 만점 중 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다. 초반엔 1~2점이었지만 감독님이 바뀌고 나서 기회를 더 많이 받았고 마지막엔 내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3점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엄지성은 “동료들과 스완지는 어떤지, 적응은 잘했는지, 경기장 분위기, 팬들 응원 등 여러 대화를 나눴다”며 “영국은 팬들이 정말 열정적이라 선수들이 그 응원에서 힘을 받는다. 그런 문화가 인상 깊었고, 동기부여를 느끼면서 나 자신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고 설명했다.

잔디 이야기도 잊지 않았다. 엄지성은 “지금 광주잔디 상태도 좋지만 영국은 레벨이다. 구단마다 전문 관리자들이 매일 출근해 잔디를 관리하더라. 선수 입장에서 경기력 향상에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밝혔다.

글·사진=조혜원 기자



스완지 시티에서 첫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친 엄지성이 지난 1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찾아 응원을 보내고 있다.

‘육상 명가’ 광주시청, 남자 400m 계주 한국신 이끌다

광저우세계육상릴레이 38초51 고승환·이재성 중심 세대 교체

광주시청 고승환(28)과 이재성(24)이 포함된 한국 남자 400m 계주 대표팀이 이틀 연속 한국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한국은 지난 11일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2025 세계육상릴레이선수권 남자 400m 계주 패자부활전에서 38초51에 결승선을 통과, 전날 세운 기존 한국 기록(38초56)을 0.05초 앞당기는 데 성공했다.

전날 예선에서 서민준(21·서천군청), 나마디 조엘진(19·예천군청), 이재성, 고승환이 이어 달려 38초56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운 한국은 이날 고승환 대신 이준혁(24·국군체육부대)이 앵커로 나서 38초51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수립했다.

이틀 연속 한국신기록은 단거리 세대 교체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광주시청 선수들이 중심에서 뛰며 만들어진 성과다.

그동안 한국 육상을 이끌었던 간판 스프린터



광저우 세계육상릴레이선수권에 출전한 한국 남자 400m 계주팀. 하경수 코치, 고승환, 서민준, 나마디 조엘진, 이재성, 이준혁, 최인해 대한육상연맹 부회장(왼쪽부터).

김국영(광주시청)이 한걸음 뒤로 물러나고 신예 서민준과 나마디조엘진이 새롭게 합류한 한국 계주 대표팀은 호흡을 맞추지 얼마되지 않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신기록을 연거푸 갈아치우는 성과를 냈다. 2022황저우아시아엔게인 남자 400m계주 동메달리스트인 고승환과 이재

성은 후배들과 호흡을 맞춰 이번 한국신기록을 이끌어냈다. 고승환은 첫 한국신기록을 세울때 앵커로 뛰었고, 이재성은 두차례 모두 세번째 주

자로 나서 스피드를 올렸다. 세계육상릴레이선수권 결선 진출팀에 주어지는 도쿄세계육상선수권 티켓을 놓친 것이 아쉬울 뿐이었다.

세계육상연맹은 이번 대회 예선 각조 1,2위에 오른 8개 팀과 패자부활전 각조 1,2위에게 도쿄 세계육상선수권 진출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패자부활전 1조에 나선 한국은 프랑스(38초31), 가나(38초32)에 이어 조 3위를 하면서 도쿄행 티켓을 놓쳤다.

물론,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

도쿄 세계선수권 남자 400m 계주에는 16개국이 출전한다. 광저우 대회 상위 14개 팀이 도쿄로 향하는 가운데 남은 2장의 출전권은 나머지 국가중 2024년 2월 26일~2025년 8월 24일 사이 기록이 좋은 2개 팀에게 주어진다. 광저우에서 기회를 놓친 한국은 기록을 더 단축해야 2013년 모스크바 대회 이후 12년 만에 세계선수권 남자 400m 계주 경기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 대표팀은 오는 27일 개막하는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새로운 기록에 도전한다.

조혜원 기자

광주은행 안산, 양궁월드컵 ‘금빛 활시위’

임시현·강채영과 여자단체 우승

광주은행 텐텐양궁단 안산이 올해 출전한 첫 국제대회에서 ‘금빛 시위’를 당겼다.

안산은 지난 11일 중국 상하이 푸동의 위안선 스포츠센터에서 2025 현대 월드컵 제2차 대회 여자 리커브 단체전 결승에서 임시현(한국체대), 강채영(현대모비스)과 팀을 이뤄 중국에 세트 스코어 6-2(56-53 57-57 54-54 57-52)로 승리했다.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는 이가현(대전시체육회)이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3관왕 임시현을 6-2(28-29 29-28 29-28 29-27)로 따돌리며 생애 첫 월드컵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임시현은 김우진과 짝을 이뤄 출전한 혼성 단

체전 결승에서는 중국에 6-2(37-35 36-38 39-38 37-36)로 승리하며 2관왕에 올랐다.

남자부에서는 김우진(청주시청)이 3관왕을 차지했다.

김우진은 이우석(코오롱), 김재덕(예천군청)과 함께 나선 남자 리커브 단체전 결승에서 프랑스에 세트스코어 6-0(60-53 57-54 58-56) 완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차지한 데 이어 혼성전, 개인전 결승에서도 금메달을 수확했다.

안산은 “지난해 열린 양궁 월드컵시리즈에서 여자단체전 금메달을 따지 못해 올해 첫 대회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며 “최고의 선수들과 좋은 결과를 거둔 만큼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까지 금빛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조혜원 기자

서석중, 대통령기전국검도선수권 단체전 정상

개인전 윤찬희 준우승 패자 조선태 대학부 단체전 제패

서석중학교가 대통령기 제47회 전국검도선수권대회 중등부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3일 열린 용인대 총장기 검도대회에 이어 올 시즌 두 번째 우승이다.

서석중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열린 대회 결승에서 상인전중을 상대로 치열한 접전 끝에 2-1 역전승을 거두며 정상에 올랐다.

서석중은 결승전에서 선봉 권민수와 2위 문율이 득점 없이 비겼고, 중견 윤찬희가 0-2로 패하며 다소 불리한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뒷심을 발휘한 서석중은 부장 허경도가 2-0으로

승리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마지막 주자 옥하준이 김민상을 2-1로 제압하며 우승을 확정지었다.

대학부 단체전에서는 조선대학교가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조선대는 예선에서 제주대, 우석대를 꺾고 준결승에서 강호 용인대를 제압한 뒤, 결승에서 충북대를 상대로 3-2 승리를 거뒀다.

개인전에서는 서석중 윤찬희가 결승에서 김민상(상인전중)에게 0-1로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고, 옥하준 역시 김민상에게 1-2로 겨 3위에 오르며 향후 활약을 기대하게 했다.

여자 일반부에서는 전지윤(탐솔라)이 준결승에서 박시은(충남체육회)에게 0-1로 패하며 3위에 올랐다.

조혜원 기자

김민주, 그랜드슬램 유도 ‘금’



김민주

광주교통공사 김민주(22)가 국제무대에서 실력을 입증했다.

김민주는 9일부터 11일까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2025 카자흐스탄 바리시 그랜드슬램 유도대회에서 여자-78kg급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민주는 2회전에서 몽골의 자담바 우랑고오를 상대로 업어치기 한판승을 거뒀다. 8강에서는 그리스의 텔치두에게 지도 3개를 이끌어내며 반칙승을 거뒀고, 준결승에서는 브라질의 프레이타스를 업어치기 한판으로 제압했다. 결승에서는 일본의 이즈미를 상대로 업어치기로 유효를 따내며 정상에 올랐다.

조혜원 기자